

삼성전자, 무주 호롱마을 보안등 LED로 교체

무주군 설천면 기곡 호롱마을에서 LED 보안등 점등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호롱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은 삼성전자 LED사업팀에서 마을의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노후 보안등 33개를 교체해주면서 개최된 것으로, 황정수 무주군수와 삼성전자 LED사업팀 관계자 부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호롱마을을 영농조합법인 박희숙 위원장 등 주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기념식과 점등식, 주민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으며 무주군이 삼성전자 LED사업팀측에 감사패를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황 군수는 "삼성전자 LED 사업팀과의 인연이 주민들의 마음을 매우 고 마을을 밝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데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를 느낀다"며 "반딧불을 닮은 친환경 LED 보안등으로 더욱 밝아

진 호롱마을은 더 건강해진 먹거리와 편안한 쉼터가 되어 여러분께 큰 기쁨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 LED사업팀 임직원들은 "삼성전자의 LED제품과 임직원들의 마음으로 자매마을 어르신들께 안전한 생활환경을 선물하게 돼 기쁘다"고 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호롱마을을 비롯한 농촌지역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일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 설천면 기곡 호롱마을 LED 보안등 교체는 삼성전자 LED사업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빛 모아(More) 세이프(Safe)"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LED 평균수명(약 5만 시간 이상)은 구형에 비해 6배 이상 길고 전력소모는 1/4수준이어서 예산절감효과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한편, 무주군 설천면 기곡 호롱마을과 삼성전자 LED사업팀과의 인



연은 지난 2010년 맺은 자매결연을 통해 지속되고 있으며, 삼성전자 LED사업팀에서는 매년 농촌봉사활동을 비롯해 농·특산물 구입과 김장나눔 등 소독향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음악회와 웃음치료, 의료봉사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들을 펼쳐오고 있으며 화물트럭과 전광판 에어컨 TV 등의 시설들도 지원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청소년상담센터 이유키 팀장, '국무총리 표창' 수상

장수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유키 팀장(사진)이 여성가족부 주최로 열린 '2016년 청소년기념의 달 기념 유공자 시상식'에서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자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이유키 팀장은 장수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24년간 근무하면서 청소년의 바르고 건강한 성장 및 청소년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특히 농촌지역의 청소년 여가·문화체험 기반이 빈약한 현실에서 지역민의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 내 아동·청소년에게 문화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 기관 및 협력단체와 연계해 취약계층 및 위기(가능)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장수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정착과 활성화에 앞장섰다. 이유키 팀장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위한 바르고 건강한 문화를 창조, 육성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노송동 '천사길 사람들' 골목길 담장 도색

노송동(동장 박병국)에서는 13일 전주시 은둔계 공동체 '천사길 사람들' 회원 20여명과 해피하우스 노송센터 지원으로 천사길 240m 일부 구간을 도색 정비했다. 이날 도색은 천사의 거리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공동체 회원들이 어둡고 퇴색한 노후 담장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국 천사길 사람들 대표는 "마을 미관 개선을 위해 회원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작업을 선택해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골목 구간을 설정해 계속 도색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인후3동 새마을협의회 소외계층 집수리 봉사

인후3동(동장 최성식) 새마을협의회(회장 황승일) 회원 10여명은 13일 동네 복지 가정방문을 통해 발굴된 소외계층 5세대를 찾아 전기누전과 지붕누수에 대한 집수리 봉사를 실시했다. 새마을협의회회원들은 "5월 중에 5세대에 대한 집수리를 모두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동네복지사업을 통해 집수리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소외된 이웃들이 편안한 보금자리에서 지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완산구, 장기요양병원입원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 강화

완산구는(최락휘 구청장) 의료급여수급자 중 요양병원 장기입원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 사회복귀 및 적정 의료이용 유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완산구는 지난 3월부터 34개 요양기관 500여명의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집중 상담 및 건강상태 등 사례관리를 진행. 현재까지 31개 요양기관 480여명에 대해 기본조사를 마쳤다. 이를 통해 부적정 장기입원자에 대한 사회복귀 및 시설입소, 민간지원 연계 등을 통한 의료급여 재정인정화와 적정 의료이용을 위해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조병우 생활복지과장은 "불필요한 장기입원으로 인한 입원요양비 증가에 대한 문제를 의료급여 사례관리와 적정 의료급여 이용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며 "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한 협력체계를 통해 수급자들의 건강향상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의회, U-20월드컵 성공 개최 기원 친선축구경기

전주시의회가 지난 12일 전주월드컵보조경기장에서 개막을 1년 여 앞둔 2017 FIFA U-20 월드컵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기원과 축구 붐 조성을 위한 친선 축구 경기를 가졌다. 이번 친선 경기는 전주시의회 의원과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공무원 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축구 경기를 통해 시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화합하고 개막식을 비롯한 U-20 월드컵 성공 개최 기원하는 뜻에서 마련됐다. 이날 축구경기에 참가한 강동화 전주시의회 축구동호회장은 "개막전을 비롯한 U-20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축구 재원 확대와 축구 붐 조성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이번 월드컵 개최를 통해 전주의 위상을 다시 한번 세계에 널리 알리고 전주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U-20 월드컵 대회는 20세 이하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제축구대회로 오는 2017년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23일간 세계 24개국 약 2800여명의 선수와 임원진이 참가한 가운데 전주에서 개막전을 포함 예선 16강 8강 준결승 전 경기 등 총 9경기가 열린 예정이다. /김영재기자

서학파출소, 성심여고 경찰직업체험단과 합동순찰

전주완산경찰서 서학파출소(소장 김일철)는 시민참여 치안 활성화를 통해 시민경찰과 합동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서학파출소는 지난 13일 성심여고 경찰직업체험단, 시민경찰 9기와 함께 2개조로 편성해 주택가 골목길 순찰과 전주교육대학교 축제 현장 등에서 합동순찰에 나섰다. 이날 합동순찰에 앞서 간담회에서 성심여고 학생들로 이뤄진 경찰직업체험단에 '나는 대한민국 미래의 경찰관'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김일철 서학파출소장은 "부족한 경찰력 해소를 위해 협력단체와 연계한 야간 합동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 공감차단 활성화 및 치안고개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진수 기자

덕진경찰서, 종합민원실 새단장

전주덕진경찰서(서장 박성규)는 종합민원실 근무인원을 재편하고 내부를 주민 친화적으로 변경하는 등 새단장을 마치고 주민들을 맞고 있다. 13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해 전산실을 본관으로 옮기고 사무실 공간을 재배치, 주민들이 보다 편하고 원활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새롭게 단장했다. 박성규 덕진서장은 "민원실을 방문한 주민들이 좋지 않은 첫인상을 받는다면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4대 사회악 해결도 공감을 받지 못할 것이다"며 "이번 새단장을 계기로 주민들을 위해 보다 신속하고 친절하게 민원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진수 기자

덕진구,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나들이' 실시

덕진구(구청장 정태현)는 13일 동현교회(담임목사 이진호)와 전주대학교(선교봉사처장 양병선)의 지원으로 관내 어르신들과 자원봉사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나들이 행사를 가졌다. '행복나들이'는 홀로어르신 등 소외계층에게 보내 명소 나들이를 통해 문화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유적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매월 2회씩 진행되고 있다. 이번 '행복나들이'는 조촌동에 거주하는 어르신 30여명을 자원봉사자 10여명이 동행 하면서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군산해안박물관 상관 관백나무숲 등 도내 역사유적지 및 관광명소를 둘러봤다. 박성규 덕진구 가족청소년과장은 "매월 나들이 때마다 참여 어르신들을 더 편히 모시기 위해 애쓰시는 동현교회와 전주대학교에 깊이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문화체험 기회와 적은 어려운 이웃들이 더욱더 많이 나들이를 할 수 있도록 체험기회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기사제보 288-9700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www.jmaeil.com	2016년 5월 25일 (월요일)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편번호 55000	전주시 완산구 완산로 222-4층 (서노출동)
부회장 김승곤	전주 김관춘	편집국장 이백수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85-418	종인지사 010-9885-674	남원지사 632-3986
삼천지사 010-2333-499	인후지사 246-6555	고창지사 566-6990
서산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김제지사 547-6855
호치사 010-9885-9955	송천지사 255-6884	임실지사 010-9842-2725
	군산지사 440-157	완주지사 246-6555
	익산지사 859-9923	진안지사 438-3054
		남원지사 632-0955
		정읍지사 539-3787
		순창지사 659-0444
		장수지사 010-3822-819
		부안지사 591-0422
		무주지사 010-2300-4258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 수상자 시상식

남원시가 주최하고 남원목기사업협동조합이 주관하는 '제9회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 시상식이 출품작 개막일인 지난 13일에 남원시청 강당에서 개최하여 수상자들과 남원 목칠공예가들이 함께하여 축하와 작품감상의 시간을 가졌다. 올해로 19회를 맞은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은 총82점의 작품이 출품된 가운데 이중 수상작으로 선정된 31점에 대해 시상을 하였다. 특히, '나전 서조문 좌경대'로 대상을 차지한 김용도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과 함께 상금 1천만원이 수여되는 등 총 31개 작품에 대한 표창과 상금 5천만원을 수여하였다. 수상작은 춘향제기간(5.14 ~ 5.16)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된다.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은 목칠과 목공예를 소재로 하는 전국 유일의 수준 높은 경연대회로 '오래된 미래 목공예부흥 프로젝트'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축사에서 "조상대대로 우리의 삶과 함께해온 목칠 목공예가 더욱 발전되어 공예산업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결론

▲신광영 전주매일신문 정경부장, 최경숙씨 막내군·유지산(유영안·김복남씨 막내)양 = 일 시 : 21 (일토) 오후 2시 30분 장 소 : 전주 오벨리스(구. 웨딩캐슬) 2층 러브홀